정읍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임대료 인하 비율 따라 차등 적용 20%서 최대 50%까지 감면 지원

정읍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 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 료를 인하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 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 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시는 지난 15일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정읍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건축물 재산세 감면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 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계획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인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인하율 20% 이상이면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이거나 직

계존비속일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 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임대 인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상 인회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세정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군산시는 탄소중립 벼 재배를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 저탄소 벼재배 교육 등 모두 25회에 걸쳐 1020명의 농업인에게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군산시 제공〉

군산시, 탄소중립 벼재배 기술 보급 나섰다

'드문 모심기' 등 홍보·교육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분야 기후변화 주간 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벼 재배시 발생되는 온 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18년 기준 2100만t(CO₂ eq) 규모로, 국가 총배출량의 2.9% 수준이다.

탄소중립 실천운동과 벼재배 기술 같은 활동들은 적게는 2%에서 많게는 85% 이상 탄소저감 효과가 있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탄소중립 벼 재배를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 저탄소 벼재배 교육 등모두 25회에 걸쳐 1020명의 농업인에게 순회 교육을 했다.

이어 담당부서와 12개 농업인상담소 등 15명의 전문지도사가 관내 육묘장 111개소를 순회하며 탄소중립 벼농사 재배기술의 기본인 건강한 모를 키우도록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를 줄이는 벼 재배법인 드문 모심기

생력재배(평당주수 50주, 본수 3~5본)는 노동력과 농기계 이용을 줄임으로써 탄소발생을 낮추고,육묘비를 절감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등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모두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소 275ha에 226농가가 참여하는 단지를 조성,시범운영하고있다

논물관리를 통해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모를 심고 한달 뒤 실시하는 중간물떼기 기간을 1~2주 정도 더길게 하여 담수 기간을 줄이고 간단관개(주기적으로 물대기)를 실시하여 평상시 물을 얕게 대는 물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간단관개는 뿌리의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벼가 병해충에 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한다.

신동우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2050 탄소중립 정책은 지속이 가능한 농업을 위한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며, 튼튼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내 농업인 분들이 탄소중립 운동에 관심을 두고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순창 1일 영어투어' 외국인 관광객들 '만석'

시티투어 '풍경버스' 프랑스인 가이드 영어로 안내 5월 1일 투어 사전 예약 마감

순창 시티투어버스인 '풍경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풍경버스는 프랑스 가이드 레아모로가 영어로 진행하는 '순창 1일투어' 상품이다. 지난해 코로 나19 상황을 고려해 20명 정원에 시범적으로 운 영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25명으로 확대해 정식 운영한다. 계절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주제를 선 정해 가이드인 레아모로와 함께 다양한 순창의 관광지를 여행한다.

4월 벚꽃을 주제로 진행된 지난 첫 번째 순창 봄 이야기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참여객의 90%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이루어졌다. 오는 5월 1일 진행되는 두 번째 순창 봄 이야기는 참여객 전원이 외국인 관광객으로 사전 예약이 마감되면서 순창의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순창 시티투어버스인 '풍경버스'가 순창 들녘을 달리고 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 관계자는 "풍경버스는 매주 금~일까지 3일 동안 강천산, 토굴, 고추장마을, 순창읍, 채계산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매월 1~2일 주제를 정해 1일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며 "영어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영어 체험학습으로도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1일 영어투어에 대한 정보는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가이드 레아모로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은 전화로만 가능하다. 전화 예약은 장류사업소 미 생물계(063-650-5477)로 하면 된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장애인 이웃 위해 LED 가로등 직접 설치

고창 최철암씨 이웃사랑 실천

고창지역의 한 주민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솔선수범 행보를 펼쳐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대산면 최철암(우성철물점 운영)씨는 장애인 이웃을 위해 직접 가로등을 설치,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사진〉

최 씨는 신체장애가 있는 이웃이 사는 골목길이 어둡다는 사연을 접하고 직접 LED등을 구입하고 전기를 연결하며 가로등을 설치했다.

최 씨는 장애 이웃이 어두운 골목길을 거닐다 혹

시 모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로등을 설치하게 됐다.

그는 "이웃이 어두운 밤길에 위험하지 않게 다닐 수 있어 다행이고, 어려운 분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씨는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평소에도 이웃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이영윤 대산면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나눔과 베풂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이학수 예비후보, 민주 정읍시장 공천 확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에 출마하는 이학수〈사진〉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1위를 차지해 공천후보로 확정됐다.

이학수 예비후보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경선에서 최도식 예비후보와 최민철 예비후보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그가 얻은 최종 득표율은 53.25%, 본래 득표율은 57.75%였으나 최도식·최민철 예비후보의 신인가산점이 반영돼 득표율이 조정된 결과였다.

이 예비후보는 공천후보 확정 후 정읍시청 브리 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과 당원의 기대 를 엄중히 받아들여 준비된 시장으로서 반드시 정 읍발전의 길을 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함께 경선을 치른 최도식·최민철 예비후 보와 이에 앞서 경쟁을 펼친 유진섭·김민영 예비



후보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함과 동시에 같은 당 시도의원후보자들과 원팀으로지방선거 승리를 위해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학수 예비후보는 배영중, 호남고, 전주

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북도의원 재선을 역임했다. 도의원 시절에는 농산업경제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거쳤으며 현재도 대통령소 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국무총리 자 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실물경제에 밝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데크의 세때교체!"

불에 타지 않고 불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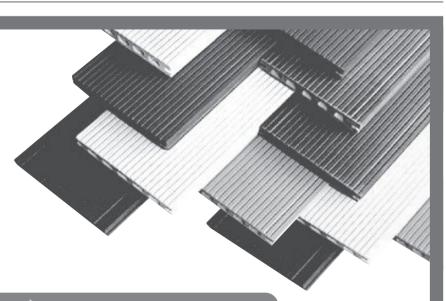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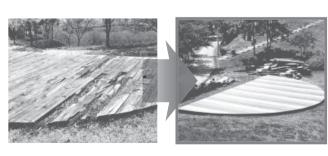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